



박요섭, 조선향 동역서신 43 (2019-09)

한 마음 한 뜻

One in Spirit and Purpose



마을 오가는 길, 은혜 아니면 갈 수 없는 길

굿인업 섬에 있는 카니누와 종족 마을에 가기 위해 전에는 배를 탔습니다. 알로타우에서 쉽 없이 13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서 마을 근처에 있는 부두에 내리면 저희가 왔는지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착 예정일이 하루 정도 늦어져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경비행기를 타고 마을에 갑니다. 섬에 있는 비비가니 활주로까지는 알로타우에서 30분 정도 걸립니다. 물론 마을에 가려면 한 시간 정도 더 트럭을 타고 가야 하지요. 마을은 섬 북쪽에 있고 활주로는 남쪽에 있어서 마을 사람들은 비행기가 왔는지, 저희가 도착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달 전에 비행기 일정을 알려 주고, 섬에 몇 대밖에 없는 트럭을 빌려서 도착 당일 활주로에서 기다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예정대로 도착을 못 하면?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알로타우에서 마을에 연락하는 방법은 배편을 통해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유일인데, 배가 가고 오는데 최소 일주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떠나기 일주일 전에 변동 사항이 생기면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떠나기 며칠 전 경비행기 도착 시각이 오전 8시에서 오후 2시 15분으로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트럭을 빌려 놓았어도 온종일 저희만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엔 부랴부랴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가 잘 도착한다는 보장도 없고, 마을에 알린다 해도 답변을 받을 시간적 여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는 해야 할 것 같아 배편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을 가는 날,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경비행기가 알로타우 공항에 착륙을 못 해 수도인 포트모르스비 공항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구름이 잔뜩 낀 날씨가 걱정스럽기는 했지만, 경비행기가 착륙을 못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마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아, 이런 일도 있구나. 부랴부랴 써 보낸 편지가 무색하게 아예 비행기가 못 가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받아들이는 수밖에... 하면서도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플랜 A, B 등을 세웠지만 떠나는 당일 알로타우에서 출발조차 못 하는 것은 계획에 없었기 때문이지요. 어쨌든 “가기로 했으니 간다!” 하고 마음을 다잡고 다음 날 포트모르스비에서 알로타우로 온 경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소리를 듣고 제발 누군가가 활주로에 나와 주기를 바라면서.

그런데 경비행기가 비비가니 활주로에 도착할 즈음 눈을 크게 뜨고 이리저리 둘러 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 어찌할꼬... 어제 도착하기로 했으니 어제 왔다 갔으려나. 조금 기다리니 저 멀리 여자가 한 명, 그리고 반대 방향에서 남자도 한 명 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들에게 이 근처에 사는 이두나 종족 번역자인 피터를 불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잠시 후 고맙게도 달려와 준 피터와 함께 이리저리 의논한 끝에 일단 섬에 남기로 하고 경비행기를 알로타우로 보냈습니다. 알로타우에서 다른 곳으로 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에 마냥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나... 남쪽 볼루볼루에 트럭이 있으니 비행기 소리를 들었으면 이곳으로 올지도 모른다고 기대하면서 일단 트럭을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렇게 해서



알로타우 공항에서 경비행기 타기 전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비비가니 활주로. 사진 왼쪽 밑의 망고나무 아래서 때론 비행기를, 때론 트럭을 기다립니다.



짐과 함께 마을로 가는 길

트럭을 타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곳에서 트럭을 빌린 것이 아니라면? 그래도 와 주려나... 2시간을 기다렸는데 트럭이 안 옵니다. 다음 방법은? 일단 짐을 피터네 마을로 옮기기로 하고, 피터에게 불루블루에 가서 트럭을 언제 빌릴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피터가 짐 하나, 곁에 있던 여자가 짐 하나를 짊어지고 떠난 지 얼마 후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심히 손을 흔들어 차를 세웠는데 이미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희 마을 쪽으로 간답니다. 뒤에 타도 괜찮으면 타라고 하네요. 짐만 실어도 가득 차는 좁은 공간에 저희 부부를 포함 10명이 타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엉덩이를 겨우 반쯤 걸친 채 비포장도로를 한 시간 정도 오르락내리락, 아프고 힘들기는커녕 마음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솟아올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트럭을 안 탔으면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언제 마을에 갈 수 있을지 참으로 막막했던 상황이었던거거든요.

마을에 올 때 힘들었으니 갈 때는 좀 수월할까 했는데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있는 동안 외부와 연락하는 유일한 수단인 라디오가 잘 되다가 갑자기 잡음이 심해지더니 서로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이전에 비행기 도착 시각이 오후에서 오전으로 바뀌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기에, 도착 시각에 변동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진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을에서 떠나기 일주일 전에는 매일 라디오 앞에서 연락이 되기를 기다렸지만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정 시각에 맞춰 가는 수밖에 없었지요. 오후 2시 20분. 경비행기가 도착하기로 한 시각입니다. 10분 전, 저 멀리 비행기 소리가 들립니다. 잠시 후 강한 바람에 맞서느라 흔들거리며 착륙하는 경비행기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목요일 저녁 번역팀 기도모임

카니누와 번역팀이 달라졌어요~

우선, 정기적으로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저희 집에서 번역자들과 번역 위원회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합니다. 마을에 도착한 목요일 저녁, 번역자인 속테스가 기도 모임을 인도했습니다. 마태복음 7:7-8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저희가 마을에 도착한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감사 고백을 드렸습니다. 어제 오후 내내 비비가니 활주로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허탕 치고 마을로 돌아온 의장 리바이를 비롯해 기도 모임에 참석한 번역자들 모두, 저희가 지금 마을에 있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한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새로운 번역자 후보 (왼쪽부터 마가렛, 셸리, 재클린)

그리고 젊은 여성 3명이 카니누와 번역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기존 번역자들이 모두 남성이라 룻기와 에스더서를 번역하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룻기와 에스더서 마을 점검에 여성들이 참여한 것입니다. 앞으로 번역 훈련도 받아야 하고 실제로 번역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함께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번역자들과 누가복음 6-12장 초역 점검

마을에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번역자들과 누가복음 6-12장 초역을 점검했고, 구약 파노라마에 포함된 30권의 서론을 번역했습니다. 이전에는 번역자 3명(속테스,

레비, 잭)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번역자 후보 3명(재클린, 셸리, 마가렛)에 마을 점검에 주로 참여했던 3명(세도키, 사이몬, 이녹)까지 최대 9명이 함께 사역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는 열정과 끈기,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이번에도 주일학교 교사들과 함께 구전 성경 이야기 워십을 진행했습니다. 워십을 통해 지난번에 참여했던 1기생 6명이 '요나' 이야기를, 새로 참여한 2기생 6명이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 이야기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비디오로 만들었습니다. 주일 저녁에 프로젝터를 이용해 큰 화면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었는데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이야기가 담긴 노래도 교사들이 직접 만들고 불렀는데 아이들은 금세 따라했습니다. 역시 아이들이 빠릅니다.

계속 기도로 함께 해 주세요.

- 지난 3월 사이클론 피해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8월 중순부터 고구마 수확이 가능해져 마을 상황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는데 카니누와 사람들이 주님과 말씀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도록
- 마을에서 번역자들이 3팀으로 나누어 누가복음 13~24장을 초벌 번역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번역할 때 지혜를 주시도록
- 저희는 10~11월 우까룸빠에서 열리는 번역 자문위원 워십에 참석합니다. 훈련을 잘 받아 카니누와 번역과 아울러 자문 점검이 필요한 팀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워십에 참여한 주일학교 교사들



**그러므로 우리는 공허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16, 개역개정)**



지난번 마을에 갔을 때는 뿌리가 하늘로 들린 채 쓰러져 있는 망고나무들을 보며 세상에,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며 그저 안타깝기만 했는데, 이번에 마을에서 보니 그 나무에 새순이 돌아나 자라나는 것입니다. 와... 이런 일이, 전혀 예상치 못한 자리에 의젓하게 돌아난 새순이 너무 신기해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쓰러진 나무에도 고통의 때에 공허를 베푸시는 주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하물며...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가기를 기도하며 파푸아뉴기니에서 소식 전합니다.

2019년 9월 20일
박요섭 조선향 선교사 드림



Wycliffe Bible Translators of Canada
워클리프 캐나다 성경번역 선교회
4316 - 10 St. NE Calgary, AB T2E 6K3
전화: 1-403-250-5411 / 1-800-463-1143

저희 PNG 연락처
휴대전화: (국가번호 675) 7109-5044
이메일: joseph-joyce_park@wycliffe.ca
카톡 id: kaninuwa2011

PNG 우편 주소: Joseph & Joyce Park
c/o SIL Alotau Centre
PO Box 30, Alotau, MBP (우편번호) 211
PAPUA NEW GUINEA